하나님의 손길 섭리와 막대길 섭리

(느헤미야 4:1~23)

7.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8.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 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9.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10.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11.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12.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13. 내가 성벽 뒤의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14.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손길 섭리와 막대길 섭리>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 섭리와 막대길 섭리’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시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피조세계 속에 삼라만상에 대한 관여하심을 우리는 섭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는 손길 섭리가 있고 막대길 섭리가 있습니다.
인간을 제외한 삼라만상에는 하나님의 손길 섭리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만은 손길 섭리와 막대길 섭리를 스스로 선택하게 됩니다. 손길 섭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창조 때의 섭리가 계속되는 것이고, 막대길 섭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직접 닿기에는 너무나 더럽고 추해서 막대기로 섭리하시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북 왕국 이스라엘이 앗수르의 침공을 받아 망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에 앗수르를 이스라엘을 치시는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북 왕국 이스라엘을 치셨다는 의미에서 앗수르를 막대기로 표현했지만, 앗수르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임했던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손길이 직접 닿은 것이 아니고 막대길 섭리가 임하고 있었습니다. 앗수르가 잘났기 때문은 아닙니다. 남 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막대길 섭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손길 섭리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등에게 또한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임하셨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대셔서 삶을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직접 손을 대실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더러울 때에는 막대기를 써서 섭리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지 않는 공간과 시간과 대상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섭리를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일본의 아베 수상은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역시 섭리하고 계십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막대길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섭리를 받아들이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막대길 섭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탁탁 치십니다. 승승장구하는 앗수르나 바벨론의 형국조차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는 앗수르나 바벨론에 하나님의 막대 섭리로 승승장구하기 보다는 차라리 남 왕국 유다나 북 왕국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손길 섭리에 얻어맞는 편이 유리합니다.

내가 소망과 열정을 품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된다면 하나님의 막대길 섭리가 내 손을 치고 계시기 때문인데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손길 섭리가 닿을 때에는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물러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열매가 충실하고 질서가 잡히고 밝은 삶이 계속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피는 백합화에는 이미 하나님의 손길 섭리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인간만은 손길 섭리와 막대길 섭리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물론 그 선택조차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막대길 섭리를 피하고 손길 섭리를 받기 위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7절을 보면 포로귀환자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던 중 이방족속들의 방해와 위협을 직면하게 됩니다. 산발랏과 도비야는 북쪽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동쪽에서의 위협이고, 아스돗 사람들은 서쪽에서의 위협이었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은 남쪽으로부터의

위협이었습니다. 성벽을 쌓으려는 유다 사람들을 사방에서 방해하고 위협했던 것입니다.
이 성벽 쌓는 일을 막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성벽 쌓기를 방해하고 위협하는 것을 극복하고 이루어야 하나님의 손길 섭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선민들이 이방족속들의 위협에 무릎 꿇고 두려움에 쫓기고 성벽 쌓기를 포기하고 세상의 흐름에 매몰되고 휩쓸린다면 하나님의 막대길 섭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방해공작을 뛰어넘어서 성벽 쌓기를 잘 하면 하나님의 손길 섭리가 임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가득 찬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방해공작에 무릎 꿇고 성벽 쌓기를 포기한다면 하나님의 막대길 섭리가 임해서 철저하게 불통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막대길 섭리조차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너무나 더러워서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들어 섭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방해공작을 극복하고 성벽 쌓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상황을 공중에서 내려다본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보일 것입니다. 또한 성벽 바깥으로는 귀환자들이 살아가는 공간으로서의 산야가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바깥으로는 동서남북으로 이방인 대적들의 포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벽을 쌓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세상에 대한 벽을 쌓는다.'라는 것은 곧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기쁨을 삼으려 하지 않고 만족할 거리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세상 속에서 가치를 찾으며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세상의 흐름이 침투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정화 작업을 하실 때에 장사꾼들이 성전에까지 들어와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침투를 막기 위하여 벽을 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기쁨과 만족은 하늘로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요청을 고집하면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루살렘 성전은 하늘의 물을 공급하는 파이프가 됩니다. 하늘기운이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우물 안에 가득 차오르고 넘쳐나게 되면서 성벽 바깥의 귀환자들이 사는 공간에 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에 있는 이방세계로까지 밀고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운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우선 성벽을 쌓는 단절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성벽을 굳건히 세우고 세상과 단절을 이룰 때에 성벽 바깥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의도적으로 앙심을 품고 성벽 건축을 방해하려 합니다. 10절을 보면 이 벽 쌓기의 방해가 어떠한 상태에서 일어나는지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

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이 방해 앞에서 더 이상 벽을 쌓을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 문제가 생긴다면 돈 문제에 대한 벽을 쌓아야 합니다. 돈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내 마음에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비롯해서 건강과 자녀와 직장 나라 등에도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벽을 쌓는 일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보면 11절에서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급박한 문제들 앞에서 성벽 쌓기를 포기하고 문제를 끌어안기가 쉬운데 여기에 마귀의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문제의 강렬함과 중대성 때문에 벽을 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탄은 우리들에게 문제를 급박하고 중대하게 보이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문제에 먹혀서 벽 쌓기를 중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벽 쌓기를 중단하면 하늘기운이 내려와서 넘치도록 쌓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이 와 닿을 수 없습니다.
17절에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오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중무장을 하고 벽을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게 닥친 문제들에 대해 벽을 세우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겠다는 결심을 할 때에 하늘기운이 차고 넘쳐서 모든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방해공작에 넘어가서 벽 쌓기를 포기하고 문제에 손을 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아픔을 동반하는 하나님의 막대길 섭리가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돈이 기쁨을 줄 것이라고 믿어서 평생 돈을 벌려고 하지만 벌리지가 않습니다. 이제껏 막대길 섭리만을 받으며 살아온 것인데 이렇게 살아온 이유를 봅니다.
12절을 보면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성벽이 있고 그 밖에는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바깥으로는 동서남북으로 이방인들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성 바깥의 유다 사람들은 동서남북의 이방족속들에게 겁을 먹고 오히려 성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변방에는 이방족속들이 들끓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벽 쌓기를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돈 문제가 벌어지면 내가 직접 발로 뛰는 것을 해결의 길로 여깁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하겠다고 돈 문제에 등을 돌린다면 정말로 안전할지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변방에 살던 사람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 사는 삶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성벽을 쌓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럴싸한 말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

다.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와 닿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 위해서는 이방의 어떠한 압력과 위협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벽을 쌓아야만 했습니다. 하늘의 기운이 넘쳐흘러서 하나님의 손길 섭리가 닿기 위해서입니다.

선민들이 성전을 생활화하듯이 우리의 마음은 십자가 생활화를 하며 벽을 쌓습니다. 돈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지만 일단 마음이 하나님으로 평안을 누릴 때까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하십니다. 이 평안이 주어질 때까지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내 마음도 세상 문제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되면 그때부터 하늘기운이 넘쳐나게 됩니다. 내가 등을 돌리고 벽을 쌓아왔던 내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돈 문제가 생기면 그대로 문제를 끌어안고 두려워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돈 문제가 있어서 내가 웃을 수 없으니, 돈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감사 헌금도 많이 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마귀가 벽 쌓기를 중단시키는 촉구에 넘어가서 돈 문제를 끌어안고 자녀문제를 끌어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 섭리가 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끌어안는 상태가 온전한 상태인데 하나님 이외의 돈 문제 자식문제를 끌어안으므로 더러움이 발생한 것입니다. 마음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있어야 될 하나님은 없고 다른 것을 끌어들여 더러워지면 하나님께서는 손을 대실수가 없고 막대길 섭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고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손을 치시는 바람에 되는 일이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굳건히 벽 쌓기를 했듯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이 세상에 대한 벽 쌓기를 통해 내가 등을 돌린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손길 섭리가 닿을 수 있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어떤 두려움이 임할지라도 벽 쌓기를 중단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하늘기운이 차고 넘쳐서 내 삶 동서남북 전체가 하나님의 손길 섭리가 닿는 창조의 장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